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협력함

(토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공홀이 많고 신실하며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체험과 누림

성경: 창 14:18-20, 히 2:17, 4:14-15, 5:6, 10, 6:20, 7:1, 27, 8:1-2

I. 성경에서 제사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 A. 성경에서 제사장이 처음 언급된 것이 제사장의 원칙을 세웠다.
- B.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 창 14:18-20.
 - 1.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기초가 되는 이야기는 한 제사장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 a.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은 후에,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아브라함이 네 왕들을 죽이고, 롯을 구출하고, 승리를 얻은 것은 틀림없이 멜기세덱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 창 14:1-3, 12-20, 히 7:1-3.
 - b.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롬 8:34, 히 7:25), 그 결과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오실 때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을 것이다.
 - c. 멜기세덱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였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공급되시어 우리를 보양하고 신선하게 하고 부축하고 위로하고 강화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창 14:18).
 - 2.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는데(히 5:6, 10), 이것은 아론처럼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하나님(마 26:26-28), 곧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 3.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주된 요점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 히 8:2.

II. 히브리서는 세 방면에서 제사장 직분에 관해 말하는 책이다 — 히 2:17, 5:6, 7:16, 25.

- A. 첫 번째 방면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 히 10:12.
 - 1.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 히 7:27, 9:12, 28.
 - 2.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한 한 희생 제물로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죄를 없애셨다 — 히 9:26, 10:10-12.
 - 3.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처음 의도에 속한 것이 아니었으며, 죄의 문제 때문에 이후에 더해진 것이다 — 히 1:3, 요 1:29, 롬 8:3.

- B. 두 번째 방면인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 히 5:10, 7:1-2.
1.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자 평강의 왕이시다 — 사 32:17, 9:6.
 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아론의 일로 예표되는 반면에, 그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것이다 — 시 110:1, 4, 히 1:3, 8:1.
 3. 왕의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공급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다.
- C. 세 번째 방면인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 히 7:25.
1.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은 신분의 문제이고,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신 것은 조성의 문제, 곧 신성한 대제사장으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갖는 문제이다.
 2. 그리스도의 신성은 살아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며, 그분을 영구히 제사장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조성한다 — 히 7:17, 24.
 3.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신성한 제사장 직분에는 생명만 있고 죽음은 없다 — 히 7:16.

III. 그리스도는 공홀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 히 2:17.

- A.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음을 제시한다.
1. 그분은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 히 1:8.
 2. 그분은 인간 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시다 — 히 2:6, 9.
 3. 그분은 육체 되심으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 히 2:14, 17.
 4. 그분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 — 히 2:18.
 5.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셨다 — 히 2:9.
 6. 그분은 우리의 죄들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셨다 — 히 2:17.
 7. 그분은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 히 2:14.
 8. 그분은 우리를 죽음의 노예가 된 데서 해방하셨다 — 히 2:15.
 9. 그분은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어 교회를 형성하셨다 — 히 2:11-12.
 10. 그분은 높여지심 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 히 2:9.
 11.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자 대장이시다 — 히 2:10.
 12.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 — 히 2:16.
- B.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홀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1. 그분께서 공홀이 많으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이신 것에 부합한다.
 2. 그분께서 신실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부합한다.
 3.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에 있는 금과 세마포로 상징된다 — 출 28:6-14, 39:2-7.
 - a. 금과 세마포를 함께 짜서 에봇을 만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것을 예표한다.
 - b. 이 우주 가운데에는 황금색과 순백색과 청색과 자주색과 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을 포함하며 금실과 베실로 짜인 직물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주 예수님께서 입고 계

신 에봇이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하늘에 속함과 왕의 위엄과 구속을 표현하는 다섯 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되어 있고 금실과 세마포로 만들어진 의복을 여전히 입고 계신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121장, 1404쪽)

IV. 그리스도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 히 4:14-15.

- A.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인격과 일과 성취에 있어서 위대하시다 — 히 1:5, 8, 2:6, 1:3, 2:9-10, 14-15, 17, 6:20, 9:24.
- B.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분은 하늘들을 통과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 히 4:14-15.
- C.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신다 — 히 9:24, 출 28:9-12, 15-30.
 - 1.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2.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지녔다 — 출 28:9-12, 15-30.
 - 3. 그리스도는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어깨(그분의 짊어지는 힘)와 그분의 마음(그분의 사랑)에 있다.
 - 4. 그리스도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짊어지시면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공급하신다 — 히 8:2.
- D.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반응해야 한다 — 히 4:16.
 - 1. 오늘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엡 2:22),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다(창 28:12-17).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백성인 우리를 하늘에 연결하시며 하늘을 우리에게 가져오신다(요 1:51).
 - 2.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V.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실지라도, 우리는 모두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셔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오직 대제사장이신 주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며,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돌보심은 언제나 적극적이다 — 롬 8:28-29.

- A. 사도 바울이 주님께 기도하며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고후 12:7-8),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9절)라고 말씀하셨다.
- B.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은혜로서 바울 안에 넣어 주셔서, 사도에게 그분께서 얼마나 소중하고 충분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다.
- C. 우리를 어깨와 가슴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체험이다.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린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가장 높은 체험과 누림이다.

VI.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권익을 돌보고 계신다.

- A.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것이다 — 왕상 8:48, 단 6:10.

B.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익, 곧 이 땅 위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엡 5:32, 6:17-18.

VII 승천 안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하나님의 경륜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새 예루살렘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확장되시고 확대되시며 증가되시고 표현되신 것이다 — 계 21:2, 9-1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멜기세덱으로 예표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히브리서 7장 1절은 멜기세덱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는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시고(4절), 이 계통이 아론의 계통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본다.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처리하며, 부정적인 방면의 일들을 다룬다. 반면에 멜기세덱의 사역은 긍정적이다. 멜기세덱은 죄를 없애기 위해 오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승리했기에 왔다. 멜기세덱은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승리자를 떡과 포도주로 공급하기 위해 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은 알지만, 그분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다.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대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고 이분은 우리의 영양 공급으로서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후,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그가 나타나기 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틀림없이 아브라함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네 왕들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참조 출 17:8-13)은 멜기세덱의 중보 기도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데(롬 8:34하, 히 7:25하), 이는 우리의 승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중보 기도에 반항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원수들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잊어버린 채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중보 기도에 반항할 것이고, 승리를 얻을 것이며, 왕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암시이다. 오늘날의 아브라함인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대적을 쳐서 죽이고 있다. 룯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는 패배하고 또 패배하며 고통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공화로 다른 이들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체험을 통해 오늘날의 아브라함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곧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시라는 기본적인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땅에서 그분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증거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에 대한 어떤 손상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러한 손상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원수를 패배시키고 왕들을 쳐서 죽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날마다 왕들을 쳐서 죽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왕들을 쳐서 죽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가족과 학교 안에 있는 왕들을 쳐서 죽여야 한다. 우리가 왕들을 쳐서 죽이고 나면, 우리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모든 왕을 쳐서 죽이기 전까지는 오시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 내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승리할 때 그분은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실 것이다. 멜기세덱은 롯과 아브라함을 위해 중보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하늘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땅에서 왕들을 쳐서 죽이고 있다. 이기는 이들이 모든 왕을 죽인 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우리의 중보자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맞봄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이다.

멜기세덱이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을 상징한다.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시게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 보기가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얻으면, 그 승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우리의 승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모셔 올 것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또한 그는 살렘 왕이었는데 이것은 평안의 왕이라는 뜻이었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나온 것은 흥미롭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이끌려지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온 땅은 놀라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조차 믿지 않고 그러한 믿음은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왕들을 쳐서 죽일 때,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왕들을 쳐서 죽일 때 나타나시게 되고, 온 우주는 그분의 오심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은 이기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분이 누구이시고, 이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서 오셨는지 묻게 될지도 모른다. 이기는 이들은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이고, 참멜기세덱이시며, 그분께서 수 세기 동안 중보 기도하셨던 하늘에서 오셨다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14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승리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그는 하늘과 땅의 소유주인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뿐 아니라(19절), 아브라함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20절). 우리의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도록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한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와 하나님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축복을 가져다준다. 신성과 부활 생명이라는 자격을 지니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신성한 축복과 함께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공급하실 수 있는데, 이는 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18-20절).

멜기세덱의 축복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 곧 가장 좋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창 14:20, 히 7:2, 4). 이것 역시 멜기세덱의 위대함을 입증한다. 우리는 승리를 통해 전리품을 얻었고, 우리의 전리품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 없고, 그분의 위대하심은 선포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왕들을 쳐서 죽이는 일의 마지막에는 우리의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 땅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온 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심을 알 것이다. 이 땅은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이 땅은 하늘들과 땅의 소유주인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오직 우리가 왕들을 쳐서 죽이는 것에 의해 이 땅에 선포될 수 있다.

의의 왕과 평안의 왕

히브리서 7장 2절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의의 왕’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살렘 왕, 곧 평안의 왕’이라고 언급되었다. 멜기세덱으로서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또한 왕이시다. 이처럼 그분은 왕의 준귀와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은 왕이었으며, 그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 따라, 우리는 의의

왕이라는 칭호가 또한 주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오늘날의 멜기세덱 이시다. 의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만들고 계신다.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고, 사람을 위해 하나님을 진정시켜 드렸다. 의는 평안을 산출한다(사 32:17). 그리스도는 그분의 의로써 평안의 열매를 가져오셨다.

멜기세덱은 또한 평안의 왕을 뜻하는 살렘 왕이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역시 평안의 왕(사 9:6)이심을 의미한다. 의를 통한 평안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을 가져오셨다. 평안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의 사역을 수행하신다.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언급한 시점에서 성경은 평안의 왕이신 놀라운 분에 대해 말한다. 그분의 칭호의 두 번째 방면은 의의 왕의 방면이다. 우리에게 의가 없다면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없는데, 왜냐하면 평안은 언제나 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멜기세덱에게는 의와 평안이 모두 있었다. 이 의와 평안에 근거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다. 주님의 상에 나아가는 우리의 근거는 동정이나 긍휼이 아닌 의와 평안이다. 로마서 3장, 4장, 5장에 따르면 우리가 의로 여겨졌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로마서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의와 의롭다 하심을 주고, 로마서 5장은 의에 따른 평안을 준다. 이 의와 평안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누린다. 의와 평안을 이끄신 분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이나 아론의 후손 중 누구도 왕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왕의 지파가 아닌 제사장의 지파였다.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였다.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히 7:13-14).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아론의 지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아론의 지파에 속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의 신분은 왕이시다. 그분께서 제사장으로서 일하실 때,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왕이시며, 따라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왕의 준귀와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이다(벧전 2:9).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권을 제사장 직분과 결합시키셨다(슥 6:13). 그리스도의 왕권은 의를 통해 평안한 질서를 유지한다. 이 평안한 질서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은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한다. 여기에서 그분의 영광은 나타난다.

가련한 죄인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왕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의의 왕이나 평안의 왕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승리를 거둔 전사에게 완결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의 왕과 평안의 왕 모두가 되어야 한다.

창세기 14장 20절에서 멜기세덱은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혼자서 조카인 롯과 롯의 소유물을 위해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쳐서 죽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 이것은 그가 대적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접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대적을 쳐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그 상황에는 의가 없었고 평안이 없었다. 의가 없었던 이유는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이 대적에 의해 사로잡혀 갔기 때문이었다.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대적이 아직 패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아브라함이 대적을 죽이고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러 온 후, 의와 평안이 있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이 의와 평안을 가져왔다. 우리가 전에 지적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다른 왕들을 쳐서 죽이고 있을 때, 멜기세덱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다.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만 의와 평안이 올 수 있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기도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의 손에 대적들을 넘겨주셨다. 이 중보 기도와 아브라함의 승리 후에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대제사장으로써 사역하시는 그리스도는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낮 동안에 싸우며 부정적인

것들을 죽이는 동안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히 7:25). 하루가 저물 무렵에 우리가 싸움을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중보 기도를 마치실 때, 그분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신다.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승리자가 싸우는 동안에 멜기세텍은 지켜보며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았고, 언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 할지 알았다. 공급하는 멜기세텍은 또한 중보 기도하는 대제사장인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대제사장은 이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멜기세텍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하시며, 우리가 칼을 들고 원수들을 죽이기를 기도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자아와 타고난 생각과 거친 감정과 완고한 의지와 다른 원수들을 죽여야 한다. 우리가 원수를 죽이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죽이는 것을 끝마친 후, 그분은 그분의 중보 기도를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는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낮 동안에는 원수들을 죽이고, 저녁에는 우리의 멜기세텍이 공급하는 떡과 포도주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죽이고 중보 기도하는 일을 끝마치고 나서 하루의 마지막에,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의와 평안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누리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멜기세텍은 의의 왕이자 평안의 왕이었다. 그가 온 후에 의와 평안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의와 평안의 상황과 상태 안에서 멜기세텍은 떡과 포도주를 승리자에게 공급하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의를 위해 싸울 필요가 있으며, 의는 평안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상황과 상태는 의와 평안으로 가득할 것이고, 우리의 멜기세텍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것이다. 이것이 왕의 신분을 가진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우리에게 의와 평안이 있을지라도, 의와 평안만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먹고 마실 무언가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매일의 공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에 근거해서, 우리의 멜기세텍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은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반면에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매일의 공급을 얻게 한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 우리는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우리의 매일의 공급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공급으로서 그분을 누리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경배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실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의 경배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로 만족시키는 경배는 우리가 우리의 공급이신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원래의 의도였다(창 2:9-10).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시어 사람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그분의 완전한 표현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 제사장 직분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매일의 공급으로 우리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 죄가 들어왔다. 따라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원래부터 의도하셨던 길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후에 더해진 것이었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람의 매일의 공급으로 사람 안에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 손상시켰다. 사탄이 죄를 가져와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들어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해진 것임을 볼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있었던 것을 잊고 이후에 더해진 것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을 간과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만 초점을 맞춘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왕의 신분을 지닌 제

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룬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없앴으며,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은혜이신 하나님을 가져왔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767-3774쪽)

신성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 —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음

성경에 따르면 제사장 직분에는 세 방면이 있는데, 바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 왕으로서의 제사장 직분과 신성한 제사장 직분이다. 제사장 직분의 아론의 방면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 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주로 속죄제물과 관련된다. 제사장 직분의 왕의 방면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방면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단어를 사용하여 제사장 직분의 세 방면을 묘사할 수 있다. ‘드림’은 아론의 방면을 묘사하고, ‘공급’은 왕의 방면을 묘사하며, ‘구원’은 신성한 방면을 묘사한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하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매일의 공급으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며, 구원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히 구출해 준다.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구원은 우리를 특별히 죽음과 죽음의 모든 상황에서 구출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제사장 직분의 세 번째 방면인 신성한 제사장 직분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죄가 끝났을지라도 이 죄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12절). 우리는 사람의 관념의 좁은 관점에 따라 죽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이해에 따르면, 죽음은 허무함과 썩음과 한숨과 탄식과 부패를 포함한다. 모든 것이 부패하고 있다. 우리는 튼튼한 몸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머잖아 썩기 시작할 것이다. 허무함과 썩음과 한숨과 탄식과 부패의 문제는 로마서 8장에서 완전히 발전하고 다루어진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을 보지만, 로마서 8장에서는 허무함과 썩음과 속박과 탄식과 부패를 본다. 온 우주는 옛 창조물의 머리인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오염되었다. 죽음으로 생긴 오염이 허무함과 썩음과 한숨과 탄식과 부패이다. 로마서 8장 22절은 모든 창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한다. 각 사람이 깊은 속에서 탄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탄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오락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락에 빠진 후에도 그들은 내적인 탄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러한 탄식이 죄의 결과물들 중 하나이다.

죽음의 산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생명만 있고 죽음이 전혀 없는 신성한 제사장 직분이 필요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썩음과 허무함과 탄식과 부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때, 탄식과 허무함과 썩음과 부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실재와 건축과 성장을 보아야 한다. 철저히 구원받는 것의 의미는 바로 죽음의 이러한 결과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구주의 구원하심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구원이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철저히’로 번역된 헬라이어 단어는 ‘완전함’에 대한 헬라이어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는다. 따라서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완전함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다.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되셨고, 이 땅에서 사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완전히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그분의 완전함 안에는 탄식과 허무함과 썩음과 속박과 부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분이신 그리스도, 곧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탄식이 없다. 그분 안에는 허무함과 속박과 부패와 썩음이 없다. 이러한 것들과 주님은 완전히 무관하시다. 허무함과 썩음과 한숨과 탄식과 부패는 모두 죽음의 부산물이다. 온전하게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이 모든 죽음의 부산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그분의 완전함 안으로 이끄실 수 있다. 이것이 철저한 구원, 곧 완전함으로 이끄는 구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죄와 죽음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다. 우리가 그분의 왕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모든 부산물들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삼켜 버리는 신성한 제사장 직분

에 참여한다.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분이로서 우리 안에 공급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는 허무함과 썩음과 한숨과 탄식과 부패와 같은 죽음의 모든 부산물들을 감소시키고 제거하고 삼켜 버리는 신성한 제사장 직분에 참여한다. 매일 우리 안에는 우리의 탄식과 공허함을 감소시키고 삼켜 버리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에 더욱더 참여할수록, 탄식이 더욱더 줄어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한숨은 더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더 외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신성한 제사장 직분으로 철저히 적셔지는 것이다. 우리가 신성한 제사장 직분으로 철저히 적셔질 때, 이것이 곧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이다. 영광스럽게 됨은 또한 허무함과 썩음과 한숨과 탄식과 부패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광스럽게 됨, 곧 완전한 아들의 자격과 우리 몸의 구속의 정확한 의미이다(23절). 우리 몸의 구속은 이 몸이 변형되고 허무함과 썩음과 부패로부터 나와 신성한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스럽게 됨일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로마서 3장과 4장에 나오고, 왕의 신분을 가진 제사장 직분은 로마서 6장과 8장 전반부에 나오며,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로마서 8장의 중반부와 후반부에 나온다. 히브리서 7장은 로마서 3장이나 4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먼저 로마서 6장과 8장 전반부와 일치하고, 결국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허무함과 썩음과 속박과 부패로부터 구출되어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루는 로마서 8장의 중반부와 후반부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함에 이르는 길에 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과정에 있다. 우리의 선구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그렇게 완전히 온전하게 된 상태에 들어가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상태로 이끌릴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을 것이다. 철저히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히 온전하게 된 상태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는 허무함과 썩음과 속박과 탄식과 부패와 한숨이 전혀 없다. 신성한 제사장 직분의 사역은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까지 구원한다.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은 사역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분은 살아 계실 뿐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떤 것도 그분을 파괴할 수 없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쉽게 파괴되고 파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서 우리를 돌보는 신성한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구원하는 능력이다. 신성한 대제사장의 일은 주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는 것이다.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신성한 제사장 직분은 죽음의 모든 부산물로부터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안으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할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신다(히 7:25상).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거듭났다는 의미에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구원이 필요하다(롬 5:10). 우리가 나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비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릇이 하늘을 향하지 않으면 빗물을 담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구원받지는 못할 것이다. 한 자매가 막 성질을 내려 한다고 하자.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께 돌이켰고 성질을 내는 것을 멈추었다. 그녀는 성질에서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철저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녀가 성질로부터 철저히 구원받았다면, 그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주님을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철저히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잘못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기억하지도 않으신다(히 8:12). 따라서 용서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의 용서가 잊어버리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철저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참으로 누 군가를 용서했다면, 또한 그의 잘못을 잊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서나 우리의 매 일의 어려움들에서 철저히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 아갈 때, 그분은 그분의 부활 능력 안에서(빌 3:10)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롬 8:2) 우리를 구원하신 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777-3782쪽)